

# <불멸>에 반영된 중국문화형상 연구

\* 남춘애

## 1. 들어가며

본 논문에서는 한국 문학 중 배경을 중국으로 하고 있는 근대 문학<sup>1</sup>의 중국형상 연구의 연장선에서 한국 현대 문학에 반영된 중국형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2010년에 출판된 이문열의 <불멸>을 중국 배경의 소설 계열에 넣고 그에 반영된 중국 문화 형상<sup>2</sup>을 알아보는 데 그 주안점을 두었다.

<불멸>은 안중근 의사의 불멸의 사적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안중근의 어린 유년기로부터 성장의 과정, 하얼빈 의거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의 생애를 소설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설의 행보에 중국의 문화요소가 다분히 배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에 함유된 중국 문화형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불멸>의 중국 문화형상은 중국사, 중국 역사인물, 언어표현, 중국의 지명 등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정된 지면으로 하여 소설에 담긴 중국 문화형상을 크게 두개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는 <불멸>에 반영된 중국사를 통해 본 중국 문화 형상이다.

두 번째로는 <불멸>의 소설언어를 통해 본 중국 문화의 형상이다.

이러한 과제로 논문을 쓴다는 것은 기존 연구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가까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것이다. 아울러 본의와는 달리 논문의 짜임에 엉성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본 논문은 다만 시작이란 의미에서 밀고 나가고자 한다. 어쨌거나 본 연구는 한국 소설에 담긴 중국형상 연구의 한 파트이다.

\* 남춘애. 중국 대련민족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南春爱. 中国 大连民族学院. 韩语系教授

<sup>1</sup> 이문열의 <불멸>을 근대문학이라고 지칭한 것은 소설에 담긴 내용을 준거로 하여 획분한 것이다. 역사의 흐름대로라면 이문열의 <불멸>은 틀림없이 현대문학에 속한다. 말하자면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은 근대문학과 현대문학을 구분한 것임을 말해둔다. 필자 주.

<sup>2</sup> 문화의 의미가 광범위하듯이 문화형상의 의미 또한 넓다. 본 논문에서는 <불멸>에 나타난 중국의 역사, 인물, 언어표현 등에서 보이는 것을 모두 문화형상의 범주에 귀속시킨다. 필자 주.

## 2. 《불멸》과 중국 문화

이문열의 장편소설 <불멸>은 조선 근대사의 한 부분이라 할 만큼 그 시대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근대의 조선과 중국이 불멸의 영웅 안중근을 소설화하는데 배경으로 된 작품이다. 작품은 전반적으로 안중근의 일생을 근간으로 이루어졌다. 안중근 삶의 배경, 그의 출생에서부터 성장, 독립의사로서의 활동, 하얼빈에서의 의거, 중국여순감옥에서의 생의 마지막 순간 등 작품의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중국 문화의 흔적은 수없이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거의가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이민 소설과 비교해 볼 때; 유이민소설은 비록 1910년대 부터 광복 전후까지가 작품들의 배경이 되었다. 그 중 많은 작품은 중국에서 완성되었고 작가가 중국에 살면서, 혹자는 중국에서의 오랜 생활이력을 갖지만, 그들의 작품에 체현된 중국 요소가 오늘에 사는 이문열의 <불멸>에 비하면 무색할 지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가 연구를 위해 1,2 권을 읽으며 수집한, 관련 중국문화 요소에 대해 메모한 것에서 이는 충분히 입증된다.

<불멸>에 표현된 중국적 요소들은 모두가 안중근 영웅 형상 재현에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역할하고 있다. 그 중 대표성을 띠는 부분을 숫자로 여기에 밝힌다면 아래와 같다, 중국사 관련 중국 요소가 25-30 곳, 논어와 전고 35 곳, 중국 현지 지명 28 곳, 중국 역사인물 22 곳 등이 그것이다. 그 중 아래 몇 토막만 나열하여 대체적 모습을 알아본다면;

① “자네들의 말도 옳다 하지만 내말도 들어보게. 옛날 초패왕 항우는 글공부란 이름만 적을 줄 알면 된다고 했다. 그랬는데도 만고 영웅으로서 초패왕의 큰 이름은 오히려 천추에 남아 전한다. 나도 학문을 가지고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다. 초패왕 저가 장부라면, 나도 장부다. 그에게 이루어진 일이 어찌 내게는 아니된단 말인가.”<sup>3</sup>

② “...옛날 고구려가 일본의 한 부락에서 꺾기하여 여러 곳을 정복한 뒤에 동쪽을 응시하여 패업을 빛내고 7 백 년을 이어 간 것은 바로 상무의 효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조선조에 이르러 文을 숭상하고 武를 낮추었기 때문에 조정의 높은 별슬아치들은 말도 제대로 탈 줄 몰랐고, 군사에 관한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도 않았네. 무반을 업신여겨 사대부로 쳐 주지도 않았고 ,

<sup>3</sup> 이문열, 『불멸』 1 권, 민음사, 2010, 2, p18.

날마다 태평세월이라고 속여 군주에게 아첨하였으며, 제 권세만 키워 백성들을 학대할 뿐이었는데. 백성들의 본보기가 될 만한 자들도 모두 송학(주자학)의 찌꺼기에 취해 언론을 독단하며, 일하여 이룩한 공은 속된 학술로 몰아붙이고, 무예는 천한 기술이라 배척하여 상무의 기풍을 헐뜯고 억눌렀네. 백성들의 기운을 쇠약하게 만들었으며, 나라문을 닫아 걸고 졸면서 스스로 교만하여 편안하다 여겼네. 이렇게 하고 망하지 않을 나라와 종족이 어디 있겠는가...”<sup>4</sup>

③ “토끼 사냥이 끝나면 앞장서 달리던 사냥개는 삶기고, 내를 건널 때 요긴하게 쓴 지팡이는 건너편에 이르면 모랫바닥에 내동댕이쳐진다더니, 내가 실로 그 꼴이 되었구나...”<sup>5</sup>

④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그 가운데 하나는 스승 될 만한 이가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천하의 도산이겠습니까?...”<sup>6</sup>

⑤ “듣고 보니 그대의 말이 참으로 옳소. 옛날에 초패왕 항우가 오강에서 자결한 것은 두 가지 원통함이 있어서였을 것이요. 하나는 무슨 면목으로 다시 강동의어른들을 만나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강동이 비록 작은 땅일지언정 족히 왕 노릇할 만하다는 말에 화를 참지 못해서였을 것이요. 특히 서초패왕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며 영웅을 자처하던 항우에게 손바닥만 한 강동으로 건너가서 작은 왕이라도 되란 말이 얼마나 욱되었겠소? 하지만 그때 항우가 한번 죽고 나자 천하에 또다시 항우가 없었으니,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소? 감히 견주어 보는바, 오늘 이 안응철이 처한 자리도 또한 그와 같소. 이 안응철이 여기서 한 번 죽으면 세상에 다시는 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던질 안응철이 없을 것이요. 그래서 정작 크게 쓰여야 할 때 내던질 목숨이 없으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소? 무릇 영웅이란 것은 능히 굽히기도 하고 능히 무릅쓰고 버티기도 해야 하는 법이라 들었소...”<sup>7</sup>

이상 소설 <불멸>에 담긴 수많은 중국 문화형상 중 다섯 구를 예로 적었다.

① 은 소년 안중근의 상무적 기백에 대한 것이다. 그가 소학을 배우고 사서와 통감(자치통감)에 접어들면서 책읽기를 싫어하고 상무의 기질을 되살려 말타기나 포술(砲術)에 집념하는 안중근을 두고 선생도 우려하게 되었고, 벗과 동학들도

<sup>4</sup> 이문열, 같은 책, p54.

<sup>5</sup> 이문열, 같은 책, p135.

<sup>6</sup> 이문열, 같은 책 2 권, p45.

<sup>7</sup> 이문열, 같은 책 2 권, p211

보다 못해 또한 그를 간곡히 타이르게 되었다. 이 구절은 이에 대한 중근의 답이다. 그리고 그의 이 말은 <불멸> 2 권에서 안중근이 교육과 계몽에서 구국의 길을 찾고 있을 때 그에게 말한 김진사(안중근 부친의 친구)의 일깨움을 위한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말은 이러하다. ‘이미 이 나라에 자주독립은 이 백성을 허끝으로 달래고 붓끝으로 깨우치는 것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네’. 안중근은 자기를 초패왕 항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초패왕은 이름자만을 쓸 수 있다면 그걸로 배울 것은 다 배웠다고 했다.

② 는 일찍 안중근의 지혜를 알아본 백암 박은식의 말이다. 박은식 자신은 이 말을 안중근에게 한 지 몇 해 안 돼 독립협회에 가입하고 애국계몽운동에 몸을 던졌으며 뒷날에는 이승만에 이어 임시정부의 2 대 대통령까지 되었고, 한때는 창해노방실(滄海老舫室)이란 필명으로 몸소 중근의 전기를 쓰기도 하였다. 박은식의 길언으로 하여 ‘안태훈은 중근이 무사(武事)에만 빠져 있는 것을 더는 걱정하지 않았다. 집안에서 묵는 포군들과 산야를 쏘아다니며 말타기와 총 쏘기로 날을 보내도 중근을 나무라는 법이 없었다’. 박은식은 조선조 양반들을 주자학에 빠져서 입만 살아 있을 뿐, 실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뿌리라고 지적하였고 중근과 같이 상무적 인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③ 의 말을 줄이면 토사구팽(兔死狗烹)<sup>8</sup>이란 성어가 된다. 이 말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 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혹(苛酷)하게 버린다거나 일이 있을 때는

<sup>8</sup> 사마천, 《史记·越王勾践世家》, 원문은“飞鸟尽, 良弓藏; 狡兔死, 走狗烹”로 되어있다. 이 전고의 유래는 아래와 같다. 춘추시기에 오, 월 두 나라 사이는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기원전 497 년 오나라가 월나라를 전멸하자 월나라 왕은 무릎을 꿇고 오나라 왕의 노복이 되었다. 그는 삼년 만에 오나라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어 월나라로 돌아왔다. 돌아온 후 국 치를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쉼 위에 눕고 쓸개를 핥으며 원수를 잊지 않다. 이러한 나날을 10 년 거듭하여 월나라는 끝내 오나라를 전승하고 국치를 씻었다. 월왕이 국치를 씻을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유능한 두 충신 범여(范蠡)와 문종(文种)의 보좌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왕의 마음을 싸기 위해 범여는 월왕으로 하여금 오왕의 환심을 사는 계책으로 월나라 미인 서시를 바치게 했다. 두 충신은 오왕의 신임을 얻은 후 오왕을 꼬드겨 오나라 충신 오자서를 죽이게 하였고, 오나라에 발아되지 않는 종자를 쓰게 하여 최악의 흉년을 겪게 하였다. 월은 끝내 오를 멸할 수 있었다. 월왕은 범여에게 상장군을, 문종에게 재상의 자리를 주었다. 그러나 범여는 받지 않고 은둔하여 살았다. 범여는 함께 나라를 되찾은 문종을 잊을 수 없어 그에게 서신을 보냈다. ‘조속히 떠나시오. 우리의 임무는 이제 다했소, 월왕은 흉금이 좁아 고난은 함께 할 수 있어도 부귀는 같이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오.’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문종은 월왕이 자기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범여의 충고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월왕은 사람을 시켜 문종에게 오왕이 충신 오자서를 자살하게 한 걸을 보내왔고 자기의 의중을 담은 서찰을 전달했다. ‘선생은 그때 나에게 오나라를 멸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소. 그런데 과인이 세 가지 방법만으로 오나라를 멸했소. 그러니 아직 네 가지가 남았네. 이 네 가지 방법은 선생이 선생에게 남겨 주시오’. 문종은 이 서찰을 읽고 후회막심했지만 길이 막혀 월왕의 뜻을 따라 자결하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 이야기는 춘추시기 월나라 문종 외에도 《사기(史記)》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 전하는 한신을 비롯하여 ‘토사구팽’ 사례가 수없이 많다. 필자 주.

실컷 부러먹다가 일이 끝나면 돌보지 않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세정(世情)을 비유한 말이다. 이 말은 안중근의 부친 안태훈이 동학당의 진중에 있던 쌀을 뺏아 온 일로 하여 루를 당하게 되었을 때 한 말이다. 이 말에는 중국 역대로 내려오면서 인재가 득세했을 때 물러나야 하는 인재등용의 비극을 경계해 주고 있다.

④ 는 ‘삼인행 필유아사’란 말을 풀이한 것이다. 안중근이 계몽 식산운동을 벌이고 있으면서 대한매일신문사로 도산 안창호를 찾아가 작별하고 나올 즈음 안중근이 한 말이다. 안창호는 비밀 조직인 신민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안중근은 그 조직에 가담하고 싶은 마음에서 찾아갔었다. 자기의 목표하는 바를 단번에 달성은 못했지만 안창호와의 대담에서 자기의 부족을 발견한 겸손한 말이다. 이 말은 공자의 <논어·술이>에 실려있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항상 몸을 굽히고 겸허하게 배움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안중근의 품성이 돋보인다. 이 말은 지금 중국에서도 상용되는 말로 중국 공자의 어록이자 중국인의 어록이 되었다. <논어-술이편>에 보면 공자의 말씀으로 이렇게 실려 있다.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중 착한 사람은 이를 좇고, 그중 착하지 못한 사람은 이를 고친다(三人行 必有我師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 삼인행 필유아사 택기선자이종지 기불선자이개지).” 그리고 <논어 里仁篇>에는 “착한 것을 보면 같기를 생각하고 착하지 못한 것을 보면, 안으로 스스로 살핀다(見賢思齊焉 見不賢而內自省也 견현사제언 견불현이내자성야)” 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의 바탕이 되는 말이다. 남의 착한 행실은 따를 만하고, 남의 악한 행실은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⑤ 는 안중근이 참모중장의 신분으로 의병들을 이끌고 참패했던, 역사상 회령 전투라 불린 의병대의 참담한 상황에서 안중근이 홀홀단신으로 적진을 돌진하려다가 수하의 권하는 말에 깨달음이 생겨서 하는 말이다. ‘무슨 면목으로 강동의 어른들을 만나 볼 수 있겠느냐’(无颜见江东父老)<sup>9</sup> 란 초패왕의 말을 떠올린 것은 안중근이 항우의 본을 따 자기 한 목숨을 죽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푸른 산만 있으면 땔나무걱정은 없다 (留得青山在不愁没柴烧)는 속담에서처럼 다음의 행보에 대해 깨닫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sup>9</sup> 司马迁, 《史记》第七卷《史记·项羽本纪》.

이상 예를 살펴보면 모두가 지금의 중국적인 분위기에서도 상용되는 문화현상<sup>10</sup> 들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여 필자는 <불멸>의 중국적 요소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연구해보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 3. <불멸>의 중국문화 형상

작품 <불멸>에 담긴 중국적 요소들은 모두가 안중근을 부각하는 데 무대가 되어 주었다. 말하자면 본 논문에서 중국문화 형상에 대해 살펴 보는 것은 본 연구가 근간이나 지엽이냐를 떠나 안중근 연구의 일부분이 된다는 데 의미를 둔다.

주지하다시피 안중근에 대한 기존연구는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그 연구 성과들은 대단한 것인 바, 두루 살펴 보면 기존 연구의 갈래는 크게 일곱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안중근의 의거에 초점을 맞춘 사상과 관련된 연구<sup>11</sup>, 둘째는 안중근의 천주교 의식을 바탕으로 연구한 종교사상과 관련된 연구<sup>12</sup>, 셋째는 안중근이 옥중에서 집필한 <동양평화론>을 바탕으로 한 안중근의 동양평화사상 연구<sup>13</sup>, 넷째는 안중근의 교육구국과 의병운동을 비롯한 민족독립운동에 관련된 연구<sup>14</sup>, 다섯째는 안중근 유묵 작품에 숨어있는 미학적 가치와 관련된 연구<sup>15</sup>, 여섯 째는 안중근 의거에 대한 국내 외 인식에 관한 연구<sup>16</sup>, 일곱 째는 안중근 유묵에 대한 연구<sup>17</sup>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들 중, 학술논문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

<sup>10</sup> ① 은 용기, 용맹은 충천하지만 책략, 지모가 없이 덤비는(有勇无谋)사람을 이르고 있다. ② 일찍 알아본 백락(伯乐)은 원래 춘추시대 진나라 사람으로, 훌륭한 말을 잘 가려 낸 것으로 유명했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인재를 잘 알아보고 등용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되고 있다. ③ 의 토사구팽(兔死狗烹)은 현시대의 냉혹한 인정세태를 말하는 표현이다. ④는 언제든 겸허한 자세로 타인에게서 배울 줄 알아야 한다는 사상을 말한다. ⑤ 는 무엇을 하다가 실패를 겪게 되면 항상 입에 올리는 중국말이다.

<sup>11</sup> 학위논문으로는 신운룡의 安重根의 生涯와 思想에 대한 一考 安重根의 教育思想 研究

<sup>12</sup> 관련 연구논문 중 대표적인 학위논문으로는 안미영의 「안중근 토마스의 영성」(카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 석사논문, 2011), 하정호의 「안중근의 천주교 신앙 연구」(카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석사논문, 2008), 단행본으로는 황종렬의 『신앙과 민족의식이 만날 때』(분도출판사 2000)등이다.

<sup>13</sup> 관련 연구논문 중 대표적인 학위논문으로는 한규영의 「안중근의 평화사상 연구」(공주대학교 석사 논문, 2006), 학술지논문으로는 이현희의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사상 연구」(한국문화학회, 2001), 단행본으로는 채륜의 『안중근과 동양평화론』(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2010) 등이 있다.

<sup>14</sup> 학위논문으로는 신운룡의 박사논문 「안중근의 민족운동 연구」

<sup>15</sup> 이 부분은 학위논문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오도열의 「안중근 서예의 미학적 연구」(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11), 박경희의 「안중근 의사의 서풍 연구」(원광대 석사논문, 2010)

<sup>16</sup> 이에 속하는 논문으로는 장석흥의 「안중근의 대일본 인식과 하얼빈 의거」(교회사연구 16 집, 2001)이 있다.

<sup>17</sup> 이에 속하는 논문으로는 오도열의 「안중근 서예의 미학적 연구」(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11), 박경희의 「안중근 의사의 서풍 연구」(원광대 석사논문, 2010), 남춘애의 「안중근 유묵에 담긴

하고 있는 바, 백여 편에 달한다. 그럼에도 안중근 부각에 한 힘이 된 중국적 요소에 대한 연구논문은 현재까지 본인의 한편의 논문 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원전 텍스트 <불멸>을 선택하여 그에 담긴 중국 문화에 대해 살펴보면서 본인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상술했지만, 안중근을 소설화한 <불멸>의 중국 요소는 아주 진하다. 이러한 아울러 이 소설의 중국 요소를 살펴보는 일은 안중근 연구의 일부분이 될 뿐만 아니라 안중근 연구에 좋은 의거를 제공해 주게 된다.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알려면, 또는 안중근이 살았던 시대를 알려면 이러한 중국적 문화요소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세인들에게 기억된 안중근의 영웅적 삶은 중국 하얼빈과 여순이라는 장에서 완성되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안응칠역사><sup>18</sup>나 <안중근평전><sup>19</sup>에서는 안중근 사적의 중심을 읽을 수 있다면, 중국문화형상에 입각한 본 연구는 그러한 민족형상을 빛나게 하는 수단들을 묶어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안중근 부각에 투입한 중국문화형상을 읽어보자는 것이 본 논문의 취지이다.

### 3.1 중국사를 통해 본 중국 형상

이문열의 <불멸>은 안중근의 성장의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하얼빈 의거까지를 소설로 풀어 내고 있는데, 영웅 안중근과 인간 안중근이 항상 교차되면서 그려져 있다. 가 이문열은 해박한 중국문화 지식으로 자유롭고 객관적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독립과 의거의 문제를 사색하였다. 그는 해박한 중국사 지식을 소설에 접목시켜 인물 부각의 밑거름으로 이용하였다. 이를테면 <태평천국운동>, <갑오청일전쟁>, <의화단운동>, <봉천대회전>, <동북항일연군>...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 <태평천국운동>과 <갑오청일전쟁>의 경우만 보기로 한다.

<태평천국운동>의 경우;

작품에서 중국 태평천국운동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안태훈 일가가 천주교를 신봉하게 된 것과 안태훈이 불운해지기 시작한 것 등이 모두 태평천국운동을 지극히 닮은 동학운동과의 연관을 떠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되면서 양자가 이어진 경우이다. 소설에서는 동학운동의 성질이 태평천국운동과 닮았다고 말하고 있고,

중국형상 연구」(『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12, 55 집)

<sup>18</sup> 안중근 저, 안중근 송모회 역, 『안응칠역사』, 『대한의 영웅 안중근 의사』, 2008.

<sup>19</sup> 김삼웅, 『안중근 평전』, 시대의 창, 2009.

이로 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한 페이지로 소설화 되고 있다. 동학 운동은 안중근이 성장하는 데 한 무대가 된다. 그는 이 운동으로 하여 아버지 안태훈을 따라 서학 천주교를 믿게 되었고, 동학운동이 초심과는 달리 민초를 속이는 사이비한 농민운동이라고 평가하는 안태훈의 사상에 따라 동학운동을 진압하는 대오게 서게 되었으며, 이로하여 안중근 일생에 처음으로 동학운동을 진압하러 조선에 들어온 일본군을 의식하게 된다. 동학을 주장하고 서학을 반대하는 동학운동은 안태훈 부자에게 있어 한낱 조선의 개화를 막는 무의미한 운동이었다. 태평천국운동과 동학운동은 모두 농민이라는 뿌리를 갖고 있고 종교의 힘을 입고 시작된다. 동학은 최제우가 서학에 반해서 만든 교로서 서방 종교인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 동방의 학문, 즉 조선의 학문이라는 뜻을 붙인 데서 나온 것이다. 태평천국운동은 청나라 말기의 부패함을 반대하여 기독교의 힘을 입고 운동의 역량이 무어졌다. 태평천국이라 부르게 된 것은 기독교의 교리로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는 의미를 본 딴 것인데 이는 민중들이 짧은 시간에 뭉칠 수 있었던 정신적 배경이 된다. 태평천국조직은 그 힘이 너무 강대하여 증국번<sup>20</sup>, 좌종당<sup>21</sup> 등과 같은 조정의 핵심세력이 출두하여 외세의 힘을 빌어 진압한다. 동학운동 역시 외세의 힘인 청군과 일군에 의해 진압된다. 태평천국은 14 년이란 세월동안을 존속하였고 중국의 근대화에 큰 몫을 하였다.

<갑오청일전쟁>의 경우;

작품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호남의 봉기 소식을 듣고 놀란 대군주 폐하께서 구원을 청하니, 청나라로서는 새로 일어나는 일본의 기세가 날카롭고 영국의 새 함선으로 꾸민 그 함대가 두렵다 해서 모처럼 찾아온 조선 출병의 기회를 마다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청나라가 병든 사자이고, 서태후(西太后)가 그 군비를 다 가져다 써 버려 껍질만 남은 북양함대 (北洋艦隊)라 해도, 아직은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 하여 개전을 망설이던 일본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서양 열강에게 오장육부 다 맡겨놓고 마지막 숨을 몰아가면서도, 일본에게는 멍든 두 눈을 부릅뜨고 푸석돌 같은 주먹을 돌려메는 청나라가 조선반도에서 활개 치는 꼴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바람에 터진 청일전쟁은 짧아도 5 년,

<sup>20</sup> 증국번(曾國藩 1811.11-1872.3) 청(淸)나라 말기의 정치가·학자. 태평천국을 진압한 지도자이며, 근대화 운동인 양무운동(洋務運動)의 추진자이다. 주자학자이며, 문장가로도 유명하다.

<sup>21</sup> 좌종당(左宗棠, 1812,11- 1885,9), 청(淸)나라 말기의 정치가. 증국번의 상군(湘軍)을 지휘하여 태평천국운동을 진압, 프랑스로부터 기술원조를 받아 조선소를 설립, 양무운동(洋務運動)의 선구자.



길면 10년 넘게 앞당겨졌고, 머지않아 일본과 러시아의 결판까지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앞당겨진 청일전쟁 때문에 사라진 세월은 우리에게 그 한 해 한 해가 천금같은 자강(自強)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설령 1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세월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들 우리 조선의 개화와 독립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지사들이 애써 길을 더듬고 열어가자 그 세월마저 줄여 버린 동비드러이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sup>22</sup>

이 한 단락을 보면 갑오청일전쟁은 동학운동으로 하여 야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한 단락의 말은 안태훈이 모든 가문의 수장들 앞에서 한 말로서 그는 이미 동학의 전략을 일찍부터 내다보고 있었던 셈이다. 동학으로 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들어간다고 보고 동학으로 하여 청국과 일제를 불러들이고 또한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욕심도 진일보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면을 ‘조개와 도요새가 서로 다투다가 함께 어부의 이득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다. 청일전쟁은 이문열의 소설에서 일본의 승리를 기대하는 민중의 심리를 담고 있다. 이는 안태훈의 ‘청나라가 병든 사자이고, 서태후(西太后)가 그 군비를 다 가져다 써 버려 껍질만 남은 북양함대(北洋艦隊)라 해도, 아직은 승리를 기필(期必)할 수 없다 하여 개전을 망설이던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였 습 니다.’란 말에 의해 입증된다. 속국의 신세를 벗고자 하는 민중의 마음을 담은 말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로 하여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고 만다. 그 역사적 시기에 중국 청나라는 독립하고자 하는 조선 민중의 마음에서 빨리 잊고자 하는 상대로 자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용문 중의 ‘서양 열강에게 오장육부 다 맡겨놓고 마지막 숨을 몰아 쉬면서도, 일본에게는 멍든 두 눈을 부릅뜨고 푸석돌 같은 주먹을 둘러메는 청나라가 조선 반도에서 활개 치는 꼴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는 말에서도 이는 다시 한번 입증이 된다. 이러한 것은 ‘개화파로 자칭 하면서부터 반청감정을 키워왔던 안태훈’의 개인 감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한 단락은 청일전쟁이 끝난지 9년이 되는 1904년의 일이지만 청일전쟁에 대한 중국인의 감정이 묻어나온 것이라 하여 예로 든다./

“...안 아무개라는 그 서학쟁이 놈이 나를 되놈이라 부르며 내 의술을 비웃고 의심하였다. 또 진맥을 받을 때도 술 냄새가 나기에 예의지국 조선은 의원에게 진맥을 받을 때도 술을 마시고

<sup>22</sup> 이문열, 『불멸』, 민음사, 2010.2. pp48-49

오느냐며 나무랐더니, 대청 북양함대는 군함에 여자까지 태우고 다니며 싸웠다는데 월 그리 따지느냐며 비웃었다....북양함대가 군함에 사관들의 아녀자를 태우고 싸웠다는 얘기는 중근도 들었다.”

“너희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북양함대의 해군들은 가족이 같은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위해 더욱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다. 안가 놨은 기함 정원호(旗艦 定遠號)와 함께 장렬하게 최후를 맞은 정제독(정여창丁汝昌)<sup>23</sup>까지 능멸하였다....”<sup>24</sup>

위의 인용문은 중국 해군이 청일전쟁에서 목숨으로 일본에 맞선 영웅적 모습을 볼 수 있다. 중국 의사는 조선에 살면서 조선사람과 다툼을 하면서도 자기 나라는 잊지 않고 그 돌아가는 사정을 꼼꼼히 살펴 오면서 자국의 존엄을 지키려는 인격을 보여주었다. 이로하여 작품에서 안중근이 중국 의사를 손봐주지만 그것은 자초지종을 모르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물론 중근이 ‘욕을 봤다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서원훈(청나라의사)을 혼내주는 바람에 법의 소송에 걸려 ‘1904 년 여름을 크게 얻는 것도 없는 소송으로 보냈’지만 ‘대한 제국의 대외 관계에서 그만큼 추락한 청국의 위상을 보여 주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갑오청일전쟁에서의 중국은 패자의 형상이지만 아름다운 패자, 말하자면 마음에 담긴 조국을 잊지 않는 형상으로 그려진 것임이 짚고 지나갈 부분이다.

### 3.2 논어를 통해 본 중국 형상

논어는 유가사상의 정수로 알려져 있다. 안중근 의거의 정신적 근간이 되어준 유가 사상적 형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안중근 연구에 또 하나의 의의를 더해 주게 될 것이다. 본 챕터에서는 <불멸>에 체현된 논어 구절을 상대로 중국 유교문화사상을 연구하고 확인함으로써 작품에 담긴 중국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유가사상적 문화요소가 일생의 목표가 대한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라고 했던 안중근의 뜻이 어떻게 중국 유가문화 사상과 융합되어

<sup>23</sup> 정여창. 청나라 후기의 군인. 북양함대를 이끈 사람. 태평군으로 있다가 대세가 기울자 상군에 투항함. 후기에 북양함대 제독(提督)로 있음. 1895년 2월 정여창은 위해위(중국 산둥 위해)지전에서 일본해군의 포위와 원군이 없는 상황에서 투항하지 않고 자결하는 것으로 국혼을 지킨 애국자.

<sup>24</sup> 이문열, 『불멸』, 민음사, 2010.2. 1 권, pp342-343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로서 안중근의 정신적 배경으로 되어 있는 중국적 요소 유가문화에 대해 짚어볼 것이다.

소인이 친해지면 재물을 주고받고 군자가 사귀면 아름다운 말을 나눈다(2 권 P 21) 小人之交甜如蜜, 君子之交淡如水<sup>25</sup>의 경우:

“소인이 친해지면 재물을 주고받고 군자가 사귀면 아름다운 말을 나눈다더니, 그날 밤의 안중근과 안창호가 그랬다. 밤이 깊을수록 안창호의 언변은 빛과 열기를 더해 갔고, 안중근은 거기서 드러나는 안창호의 식견과 인품에 빠져들었다.”<sup>26</sup>

<장자 산목편>에 실린 이 말은 유가문화 중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하고 교제에서 꼭 지켜야 할 인간적 이치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이 작품에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안중근이 돈의학교와 삼흥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국채보상운동에 몸을 달구고 있었던 시절이다. 또한 이 때는 도산 안창호가 대한매일신보사에 있으면서 독립연설을 하며 독립의 씨앗을 민중에게 심어주던 시기였다. 안중근은 바로 이런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독립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을 갖게 되며 안창호를 자기집에 청하여 많은 조언을 듣는다.

“군자지교담여수”라는 말은 여기서 안중근과 안창호의 처음 만남에서부터 앞으로

<sup>25</sup> 《庄子·제 20 편 山木편》, <小人之交甜如蜜, 君子之交淡如水>란 말이 유래하게 된 원 구는 “且君子之交淡若水, 小人之交甘若醴。君子淡以亲, 小人甘以绝, 彼无故以合者, 则无故以离”이다. 이 경전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공자와 子桑호(노나라의 은자)라는 사람의 대화에서 유래했다. 공자가 자상호에게 물었다. <내 두번이나 노나라에서 쫓겨났고 송나라에서는 나무 베임(설교하던 나무)을 당하였으며, 위나라에서는 쫓겨났고, 상나라와 주나라에서는 궁지에 몰렸고 진(陳)과 채(蔡) 두 나라 사이에서는 포위를 당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차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친한 사람들과의 교분은 점차 멀어지고 제자들도 차츰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어찌 된 까닭입니까? > 자상호가 대답했다. “당신은 가(假)나라에서 도망하였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습니까? 임회라고 하는 사람이 천금 가치가 있는 옥을 버린 채 아기를 업고 도망하였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가치로 따진다면 아기는 별로 나가지 않으며, 짐 되기로 말하면 아기가 더 힘에 드오. 그런데도 값나가는 옥을 버리고 아기를 업고 도망한 것은 무엇때문이오? > 그때 임회는 <옥은 이익으로 나와 결함된 것이지만 아기는 하늘이 맺어준 것이오. 이익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를 버리게 되지만 하늘이 맺어준 사람들은 어려움과 곤란함을 당하게 되면 서로 단결하게 되는 것이오. 서로 버리려는 것과 서로 단결하는 것은 역시 그 차이가 매우 멀지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군자의 교제는 물같이 담백하지만 소인의 교제는 달콤해서 단술과 같은 것입니다. 군자의 교제는 담백하기 때문에 더욱 친해지고, 소인의 교제는 달콤하기 때문에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까닭없이 맺어진 것은 까닭 없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네이버 지식사전>.

<sup>26</sup> 이문열, 『불멸』 (2 권), 민음사, 2010. 2. p21.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할 것임을 미리 예고해 주었다. 안창호는 안중근과 작별할 때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났지만 교장 선생과 내가 함께할 일이 꼭 있을 성 싶소. 일간 서울에 오거든 반드시 나를 찾아주십시오. 대한매일 신문보사로 오면 그날로 내게 연락이 닿을 것이오’라고 하며 앞으로의 독립을 위해 할 일을 약속한다. 글에서는 이 말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자리메김을 했다. 말하자면 현자(賢者)사이의 왕래란 어떤 것인가에 그 의미를 담았다. 즉, 가짜가 필요없고 이익에 얽매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사람 사이의 편안함으로 이어 지고 신뢰에 의문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문화는 현재에 와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속되어가고 있는가. 중국 현재 사람들사이 왕래의 궤적을 펼쳐보면 더이상 위의 말에 맞는 나라 답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하자면 ‘군자지교담여수’라는 논어는 한 장의 백지가 되었을 뿐더러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關係로 맺어진 인적 네트워크이 독점한 인간교제의 장에서 “소인이 친해지면 재물을 주고 받는다”란 말이야 말로 선호도가 만점이 되어 있다. 국고의 것이든 개인 금고의 것이든 무엇이든 내놓아야 일이 성사되는 중국의 거대 환경은 이미 사람들의 처세법에 있어서 불변의 공식이 되었다. 지금에 이르러 중국의 선물 문화는 전세계의 일경이 될 정도가 되었다. 그것도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은 일경이다. 이로하여 고대 선조의 인격적 슬기는 오늘날 이해관계에 따른 지름길로 변하고 말았다.

장사 한번 떠남이어, 돌아올 수 없으리(2 권 56 쪽) 壯士一去兮 不復還<sup>27</sup>의 경우;

<sup>27</sup> 사마천, 《史记·刺客列传》卷八十六, 이 말은 “风萧萧兮易水寒, 壮士一去兮不复还。”에서 유래했다. 고사는 아래와 같다. 중국 전국시대 말엽, 부국강병한 진나라는 약소국가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때 연나라의 태자 단(丹)은 진왕정(秦王政 후날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을 죽일 수 있는 자객으로 형가(荊軻)을 물색했다. 기원 288년, 진나라는 조나라를 멸했고 그 위협이 인국인 연나라에 미치게 된다. 연나라 태자는 형가더러 하루속히 출발하여 진시황을 죽일 것을 요구한다. 이에 형가는 <진나라 왕을 죽이려면 그와 가까이 해야만 가능하다. 만약 진왕에게 그가 갈구하는 연나라 남쪽땅이 그려진 지도를 주고 그의 원수인 범어기(樊於期)의 머리를 잘라 보낸다면 가히 진왕의 목을 벨 수 있을 것이다>라고하였다. 범어기는 원 진나라의 장군이었으나 진왕과 착지고 연나라에 피난하고 있다. 그러나 연나라 태자 단은 범어기의 인재됨을 알기에 그렇게 할 수 없노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형가는 몸소 범어기를 찾아서 <내 지금 진나라 왕의 목을 베고자 하는데 장군의 머리를 빌릴 수 있겠나이까? 장군의 머리를 바치면 내가 진왕 가까이 가서 그의 목을 벨 수 있겠나이까. 장군의 뜻은 어떠한지요?>라고 했다. 범어기는 ‘날마다 원수값을 날만 고대하면서 사는 이내 마음은 다 썩었나이까. 오늘 때가 왔으니 내 어이 주저하겠나이까?’하며 스스로 목을 베었다. 형가는 진왕을 죽이는 길에 오르게 된다. 연나라 태자 단과 형가의 벗들은 이제 가면 다시 뜻을 길임을 알고 모두

이 말은 사마천의 <사기 자객열전> 형가(荊軻)편에 수록되어 있다. 작품에서 이 말은 안중근이 해외에서 의병을 일으키고자 간도로 갈 때 어머니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 말을 남기고 간도로 간 후 안중근은 다시 산 몸으로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다.

중국에서는 세월이 흘러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것을 ‘일거불복반一去不復返’ 이라고 한다. 사람의 생명도 한 번 가면 못오는 것이고, 사랑도 한 번 가면 못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은 불길하다는 느낌을 떠나 가면 안(못)오는 모든 것을 이 말로 표현한다. 청춘을 되돌아보는 늙은이들의 말에서, 시간과 앞다투는 젊은이들의 말에서 이 말을 자주 듣는다. 이외에도 중국사람들의 언어생활에는 이러한 고대고사에 뿌리를 둔 표현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이문열의 <불멸>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숨쉬고 있다.

이외에도 이 소설에는 중국문화를 담은 논어 구절, 그리고 전고 등이 적지 않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물리치고 어진 것으로 악한 것을 대적한다>, <해가 뜨면 이슬은 사라지고 달도 차면 반드시 기운다>, <풀숲을 설건드려 독사를 놀라게 하는 꿀>…등 많고 많은 논어구와 전고가 있다. 이문열이 이처럼 풍부한 중국 역사지식과 중국 고대 경전에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이유때문에 그의 소설 <불멸>을 읽으면 중국 역사서를 읽는 것 같기도하고 고대 경전을 읽는 것 같기도 하다.

#### 4. 나가며

본 논문에서는 이문열 소설 <불멸>(1,2)을 읽고 중국 역사와 중국 논어 몇구를 들어 중국 형상을 살펴보았다. 원 계획은 작품에 체현된 중국 역사, 역사 인물, 중국 지리, 인용된 논어 표현들을 빌어 체계를 세워보자는 생각으로 본 논문을 집필하였다. 허나 논문을 써 가는 와중에 한편의 연구에 이 많은 것을 다 담기에는 역부족임을 깨달고 다만 중국 역사의 두 토막과 논어의 두 표현만을 빌어 중국 형상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

소복차림을 하고 역수(易水-중국 하북성 서쪽의 강이름)변에서 바랬다. 그들은 “风萧萧兮易水寒, 壮士一去兮不复还”란 노래를 부르면서 벼를 떠나 보냈다. 자객 형가는 과연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진시황의 검에 죽음을 당했다.

소설에 담긴 중국사를 알아본 중국 형상부분에서는 <태평천국운동> 과 <갑오청일전쟁>을 의거로 살펴보았다. 작품에 담긴 태평천국운동 부분에서는 조선의 동학운동과의 연관속에서 닳은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태평천국운동을 빌어 청조의 부패상을 볼 수 있었고, 중국이 근대사회로의 진입을 이루고 있는 사회상을 볼 수 있었다. 갑오청일전쟁 역시 동학운동이 야기한 부분임을 살펴보고 청국이 패하기를 바라는 조선 민중의 심리, 말하자면 청국이 조선에서의 추락한 형상을 볼 수 있었다.

논어를 통해 본 중국 형상 부분에서는 ‘군자기교담여수’는 <장자 산목편>에 기록된 공자가 가르침 받는 고사를 빌어 현명한 인간의 교제술을 알아보았고, ‘장사 한번 떠남이어, 돌아올 수 없으리’라는 사마천의 <사기 자객열전>의 한토막의 이야기를 빌어 대업을 위함이라면 목숨을 바치는 안중근의 인간됨과 중국 고대 선인의 높은 인격을 알아보았다.

본 논문은 비록 단적인 연구에 그쳤지만 이문열의 <불멸>에서의 중국적 요소를 살펴보는 일의 시작을 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역사인물, 중국지명에 따른 중국형상연구는 추후에 다시 이어갈 것이다.